

2018년 12월 13일,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김계태(여, 1933년생, 제주시 이도2동)

- 일본 시가현 출생, 13세에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로 이주하여 조천읍 조천리에서 50년 정도 살았다. 그 후 이도2동으로 이사하여 20여 년간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설문대할망은 제주 사람들에게 소중이를 만들어 주면 육지와 제주도를 이어주겠다고 하였으나, 소중이의 끈 하나가 모자라 육지와 제주도를 이을 수 없었다. 설문대할망에게는 오백장군이라 불리는 오백 명의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들이 먹을 죽을 뗏목을 타고 저었다고 한다.

[조사자] 설문대할망 얘기 좀 해 주십서.

[제보자] 소중이끈 엇언, 육지허고 우리 제주도 허고 이르지 못헤엿젠. 아이, 그 우리도 잠깐 들어난 말. 옛날 어른덜 게난 그 설문대할망이, 옛날 우리 제주도 육지허고 이르지 허난. 소중이 끈 하나가 엇언 못 잇엇젠. 그렇게 헨 나가 들어낫주게. 아이고 게난

“소중이끈 아멩이나 하나 이르지마는 어떻 헨 육지허고 우리 제주도 이르지 못헛인고?”

헨 나가 그추룩 곱아낫주게. 옛날 명주 소중인데, 그 끈 하나가 모지렌 그 제주도허고 육지허고 이르지 못헛젠. 소중이 끈 하나 모지렌. 그런 나가 들어난 말로, 나는 들어난 대로 곤는 거. 또 옛날 어른덜 설문대할머니가 한라산에 발 한 짝 놓고 추자도에 발 한 짝 놓고 해서 바닷물에서 빨래를 헤엿다고 그런 전설도 잇곡.

어무니한테 들은 말인디.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죽 썬 허난 그 죽이 오백장군 멕이젠 허난 죽이 원간 하랴. 뗏마 탕 젓엇젠 허는 말은 들어 낫어. 그 뗏마, 죽을 젓이젠 허난 그냥 못 젓이난 뗏마 탕 돌아댱기멍 죽을 젓엇덴. 배, 뗏마, 뗏마. 우리가 들어난 말로 그렇덴.

- 핵심어: 설문대할망, 소중이, 바닷물, 빨래, 오백장군, 죽, 뗏마(뗏목)